

# “내년 예산 470조5000억... 재정 적극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9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 “총지출은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 ▲“포용국가, 우리가 가야 할 길... 정부의 시대적 사명”

문 대통령은 먼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예산 편성의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며 “국

### 문 대통령 국회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포용국가, 우리가 가야 할 길... 정부의 시대적 사명

일자리, 23조5000억... 생활 SOC, 8조7000억 투입

서민 아픔 덜어야... 국회에 적극적인 역할 주문

“평화 한반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이끄는 한 축”

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으로, 포용 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23조5000억... 생활 SOC, 8조7000억 투입”

문 대통령은 일자리에 23조5000억, 생활 SOC에 8조 7000억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혁신성장 위한 8대 선도사업에 5조1000억, 연구개발에 20조4000억원, 근로장

▲“서민·지역일자 아픔 덜어야... 국회 적극적인 역할 주문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규제혁신, 지방분권 관련 법안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지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국정원법 등 계류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남북 평화 국면에 대한 국회

려금에 3조8000억의 예산을 각각 배정한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원으로 늘리고, 대상자는 18만8000명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 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다. 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서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000억원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의 역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평화의 한반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이끄는 한 축”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간의 한반도 평화 국면에 대해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

▲“평화의 한반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이끄는 한 축”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간의 한반도 평화 국면에 대해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

격오지·특수학급 학생 대상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실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한달간 4차례에 걸쳐 도내 격오지·특수학급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발전소 투어’를 운영했다.

우리나라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해하고 선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민주주의발전소는 전북선거관리청사에 설치되어 지난 4월 24일 개관 이래 상시 운영해왔으며, 이번 민주주의발전소 투어는 평소 민주시민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격오지 학교나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게임으로 배우는 민주주의의 특징, 특수형 기표용구(장애인용)를 활용한 투표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실습을 통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진행했다.

전북선거관리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주시민교육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고 대상별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실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 지역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전북 소재 연구기관 및 대학이 개발한 농생명 우수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전라북도농생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1일 익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강당에서 ‘전북도농생명연구협의체 우수기술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촌진흥청·전북도 주최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농촌진흥청, 전북농업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대 등 14개 도내 기관 및 대학이 공동 참여했다.

한자리에서 우수기술을 소개하고 기관의 다양한 지원사업도 소개함으로써 지역 농생명관련 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이번에 소개된 기술은 ▲면역증진 기능성 소재(쑥뿌리, 도라지 등, 농촌진흥청) ▲항산화 및 체중조절 기능성 식품(메뚜기분말, 베리류 등,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발효 가공식품 제조방법(건식쌀가루, 발아고추씨, 흑미 등, 전북농업기술원) 등의 기술이 발표됐다.

김동수 원장은 “전북도가 농생명 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라북도 기업들이 안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함께 보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농생명연구협의체 우수기술 공동설명회

전북 지역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전북 소재 연구기관 및 대학이 개발한 농생명 우수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전라북도농생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1일 익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강당에서 ‘전북도농생명연구협의체 우수기술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촌진흥청·전북도 주최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농촌진흥청, 전북농업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대 등 14개 도내 기관 및 대학이 공동 참여했다.

한자리에서 우수기술을 소개하고 기관의 다양한 지원사업도 소개함으로써 지역 농생명관련 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이번에 소개된 기술은 ▲면역증진 기능성 소재(쑥뿌리, 도라지 등, 농촌진흥청) ▲항산화 및 체중조절 기능성 식품(메뚜기분말, 베리류 등,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발효 가공식품 제조방법(건식쌀가루, 발아고추씨, 흑미 등, 전북농업기술원) 등의 기술이 발표됐다.

김동수 원장은 “전북도가 농생명 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라북도 기업들이 안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함께 보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세계 대학 태권도 수련생들 집결

4-8일 태권도원서 세계대학 태권도 페스티벌... 41개 대학 참가

전세계 41개 대학 태권도 수련생들이 세계 태권도성지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2018 세계 대학 태권도 페스티벌(2018 World University Taekwondo Festival, 이하 세계 대학 태권도 페스티벌)에 참가한다.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에는 대한민국 내 대학을 비롯해 미국 버클리·MIT·스탠포드대, 일본 DAITO BUNKA대, 중국 상해대, 몽골 국립대, 말레이시아시립대학 등 9개국 41개 대학교의 태권도수련생과 국제심판 등 210여명이 참가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과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이하 WT)은 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 참가자에게 태권도 대회와 특강, 토론, 이벤트 등 태권도 수련활동을 진행해 미래 글로벌 인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태권도 그리고 태권도원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 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에는 비선수 출신으로 태권도를 수련중인

대다수의 대학생 외에도 세계품새대회 3위를 차지한 Alex LEE(미국 스탠포드대)와 김운용컵에서 입상한 Grandorj Boldbaatar(몽골 국립대) 등의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어 국가간 태권도 교류와 실력 향상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제 대학스포츠를 통합하고 있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표명하는 등 세계 대학태권도페스티벌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재단은 태권도진흥과 보급 등을 위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페스티벌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태권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대학 태권도 페스티벌 참가자들은 오는 4일 입국과 태권도원 등록, 국가별 자체훈련을 시작으로 품새·겨루기 훈련과 경기, 새벽 트래킹 및 명상수련, 특별강연



전북 119대상 시상식

전북소방본부와 전북일보사, (주)동성 공동주최로 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제2회 전북119대상 시상식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이재운 전북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등과 함께 태권도 기량 경연과 K-POP 합동훈련 등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